



New Zealand
Tertiary College



학생 프로필

이름
장윤진

국적
대한민국

프로그램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Level 7)

캠퍼스
NZTC 온라인



YOONJIN'S STORY

NZTC Student Success Story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오uckland 노스쇼어에서 0-2세(넬서리)반 선생님의 근무하고 있는 장윤진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혼자 뉴질랜드로 유학을 왔습니다.

Graduate Diploma 과정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대학교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복수 전공 한 제가 갑자기 유아교육 공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차후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국제유치원을 설립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단순히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는 원장이 아닌, 언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그 나라의 문화와 습성도 함께 가르치고 아이들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와 다양한 인종들을 어떻게 차별 없이 교육하는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미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뉴질랜드가 매력적이었습니다.

NZTC를 선택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NZTC의 GD 과정은 대학교 비전공자도 입학이 가능하고, 1.3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학업 기간에 뉴질랜드 선생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이었어요. 무엇보다, 100% 현장실습 기반 커리큘럼과 온라인 이론 수업은 제 시간과 페이스에 맞게 공부할 수 있고, 실습을 통해 현장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매주 16시간의 현장 경험과 4번의 풀타임 현장 실습 구성은, 제가 현장업무를 많이 익혀 졸업 전에 선생님의 자질을 갖춘 상태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현장실습을 하다 보면 다른 학교 실습 학생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과 적응하고 관계 형성에 어려워했고 소속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유치원에는 일자리가 있음에도 구인구직을 올리기보다 지인 선생님 추천을 먼저 받아 채용할 만큼 네트워크와 인맥이 중요한 업계입니다. 한 곳에 소속되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차후 취업에 있어 유리하고, 이 소속감은 현장 실습기간에 갖을 수 있어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대다수가 NZTC 졸업생일 정도로 NZTC에서는 많은 선생님을 배출한다고 느꼈어요. 그만큼 실습을 통해 센터와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많이 주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유일한 학교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이론수업 & 과제 구성

저는 총 10개 과목 수업을 들었고 총 9번의 에세이 과제의 제출과 1번의 1:1 줌 프레젠테이션으로 학업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처음 학교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학업 시작부터 졸업까지 해야 하는 과제들의 시작 날짜와 제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수업 시작은 제출 과제에 관한 설명이고, 각 섹션마다 주제에 관련된 설명글들과 동영상 그리고 리딩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들어가 읽고 참고해가며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수업 페이지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학생이 접속해있는 시간을 학교 측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일주일 최소 몇 시간 이상은 들어와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과제 평가는 총 3개의 등급 (pass, merit, distinction) 으로 나뉘게 되고, 만약 통과하지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달 1일 디스커션 포럼이 열리는데, 매달 본인이 듣는 수업과 맞는 토픽의 디스커션 장이에요. 이곳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답장을 달아 참여 후 캡처 후 과제에 첨부하고, 자신이 어떻게 이 디스커션 포럼에 도움이 되었는지 포함해요. 이 디스커션 포럼은 학교의 강사진들이 주도하고, 담당 강사진도 매달 1일 바뀝니다. 수업을 같이 듣는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2주에 한번, 한 시간씩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있었고, 이 수업은 꼭 본인이 참여중인 수업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제나 실습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제를 쓰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디스커션 포럼이나 학교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었고, 최종 과제 제출 전에 정해진 글자 수만큼 강사진에게 보내주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수업 자료들과 과제는 현장실습 기간때 작성하는 과제나, 교사 실무중에 작성하게 되는 서류들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장 실습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실습은 Field practice(FP 현장실습)과 Field experience(현장 경험) 으로 나뉘져있어요.

Field practice(FP 현장실습)은 학업 기간 동안 총 4번 진행되고, Field experience(현장 경험)을 한 센터 (Home Centre)에서 2번, 그 외 센터(Out of Home Centre)에서 2번을 실습을 하게 되어있어요. 한 번의 현장 실습은 총 4주(20일), 하루 최소 8시간 실습을 하게 되고, 총 4번의 현장 실습 중 최소 한 번은 2세 이하 널서리 반에서 해야 합니다. Out of Home Centre 배치의 경우, 학교에서 센터 배치 양식을 보내주면 거기에 저희가 실습해 보고 싶은 유치원 혹은 지역을 두 군데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최대한 맞추어 배정 해주었습니다.

Field experience(현장 경험)은 매주 16시간 홈센터로登高해 현장을 경험하는 작은 실습이고 이 실습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홈센터는 저희가 직접 유치원과 컨택하여 정하고,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시간 조율이 가능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하는 센터는 최소한 간단한 Reliever Job (대체 선생님) 오퍼를 받거나, 졸업과 동시에 풀타임 오퍼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센터에 정착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종 현장 실습 평가는, 제출한 현장 실습 과제를 중심으로 NZTC 학교 강사, 현장 선생님(Associate Teacher, AT)과 함께하는 대면 인터뷰로 이루어지지만, 현장 선생님(AT)의 실습 평가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장 선생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실습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실습 기간이 20일인데, 평가하는 학교 강사진은 실습 3주 차 혹은 4주 차 첫날 현장을 방문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일에서 15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유치원 커리큘럼이나 교육 철학 파악,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 현장실습 과제까지 모두 소화해 내야해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준비하고, 현장실습 과제도 준비해야 해서 매우 바쁘고 부담감이 컸었습니다.



취업에 대한 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졸업 전에, 총 3곳의 센터에서 풀타임 취업 오퍼를 받았습니다.

실습이 취업 오퍼로 이어지기까지는 몸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Field practice (FP 현장실습) 때, 하루 8시간씩 한 달 동안 센터에 나가면서 가끔은 "어차피 무급인데 내가 꼭 많은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만히 서서 아이들만 관찰하는 다른 학생 선생님들도 보았어요. 하지만 결국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팀에 융화되어 일을 도맡아서 하는 학생 선생님들을 높게 사시는 것을 졸업 직전에 여러 곳의 러브콜을 받으며 몸소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센터 선생님의 위치에서 학생 선생님들을 만나 보면, 취업 오퍼를 받는 학생 선생님들은 실습 때 열심히 땀 흘리시고, 질문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팀에 보탬이 대려고 하시고 원래 한 팀이었던 것처럼 두루두루 모두와 함께 잘 지내셨던 선생님들이십니다. 예를 들어 간식 혹은 점심시간 후 아이들 자리 청소 및 책상 소독, 아이들 장난감 소독 혹은 정리 정돈, 침구 셋업 준비 및 정리 정돈 같은 소소한 일들을 학생 선생님이 한다면 방의 루틴을 빨리 배우고 외울 수 있을뿐더러, 작아 보이지만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는 일들이예요. 첫날 선생님들이 청소도구를 어디에 두시는지, 소독약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침구는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등을 잘 관찰하였다가 다음날부터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최종목표

저의 최종 목표는 한국에 단 하나뿐인 국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다양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대다수가 NZTC 일정도로 많은 선생님을 배출하고 그만큼 실습을 통해 센터와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많이 주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유일한 학교 입니다.

확실히 매주 16시간의 현장 경험과 4번의 풀 타임 현장 실습은 현장업무를 빨리 그리고 많이 익혀 졸업 전 이미 어느 정도 선생님의 자질을 갖춘 상태로 졸업을 할 수 있게 트레이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